

컵의 공기와 그리스도인의 죄

어떤 신부님께서 강론을 듣는 신자들에게 컵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컵에서 어떻게 하면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뱉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어떤 형제님께서 “공기 펌프로 공기를 빼면 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신부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진공상태가 되어 컵이 깨지고 맙니다.”라고 웃으며 말했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견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답도 신부님께서 생각하시는 답이 아니었나 봅니다. 많은 의견이 오고간 뒤 신부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면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공기는 조금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신부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공기를 빼려고 하듯이 죄를 제거하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총만한 사랑에 의해서만이 자신의 죄를 제거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큰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죄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지요.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곧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나약함과 부족함에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니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앞선 신부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총만한 사랑을 굳게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만이 죄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의 반석이라는 칭호까지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신 있게 말했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던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떨까요?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재정 담당이라는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기셨음을 알 수 있지요. 그만큼 유다를 신임하고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넘깁니다.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 베드로도 또한 유다 이스카리옷도 모두 죄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죄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원교구 꾸르실료에서 인용)

교적관리와 구역외 신자 사목에 관하여

1. 본당 사목구

“본당 사목구는 교구 내에(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58-177조) 상설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정한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교구장의 권위 아래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가 고유한 목자로서 사목하는 지역을 말한다”(158조). 본당 사목구는, 군종본당처럼 속인적으로 설립된 공동체와는 달리, 속지적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본당 사목구는 구원의 성사인 하느님의 교회를 지역별로 구체화시키는 신앙과 전례 및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교의 신비를 구체적으로 생활화하는 곳이므로, 신자는 반드시 본당 사목구에 소속되어야 한다”(159조 1항).

2. 구역외 신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어 거주지 본당에 교적을 두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소위 구역외 신자가 생긴다.

예컨대 이사를 가고 나서도, 영세나 혼배 또는 단체활동 등의 인연으로 정든 본당에 계속 교적을 두는 경우, 종일 활동하는 일터가 있는 지역에 교적을 두는 경우, 친가를 떠났으나 아직 학업이나 미혼 또는 해외생활이나 직장 불안정의 상태 때문에 교적을 부모나 일가에게 얹어 놓고 이리 저리 옮겨 다니거나 아예 방치하는 경우, 본당 분할로 인해 도리어 교통이 불편해지거나 이주한 곳이 신설본당인 관계로 경제 부담을 기피하는 경우, 본당의 사목자, 수도자, 또는 교우들과 사이가 거북해서 그리로 다니기를 꺼리는 경우, 본당의 사목적 관할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희박한 경우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3. 본당 사목구 소속 원리의 타당성

오늘날처럼 특히 도시민의 주거 분포가 급변하고 생활환경이 주거지 밖으로 넓혀져 가는 상황에서 굳이 속지적 사목공동체를 견지하는 것은 도리어 현대인의 생태와 합치하지 않으므로 직장 내지 작종 위주의 전문화된 속인적 사목의 형태가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다만, 비록 그렇더라도 사목자와 모든 교우들 그리고 교우들 서로가 이어져 함께 하나로 체험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원리로서는 — 마치 온 국민이 주민등록으로 누락없이 파악·연결되듯이 — 본당 사목구라는 속지적인 신앙공동체를 이루는 것만큼 좋은 일치의 원리는 없으며, 이는 구원신비의 역사적 육화에도 근거하는 것이다.

4. 구역외 신자의 문제점

소속이 정리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신자 자신과 그를 사목적으로 보살필 본분이 있는 목자와 본당공동체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구역 신자들과의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 결여, 소속감의 부재와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참여 및 책임감 감소, 신앙생활의 개인주의적 주관화 경향과 교회의 가르침과 사목권 경시, 병고·상사 등 어려움을 당했을 때 평소 사이가 멀던 구역 신자들에게 끼치는 심리적 부담 가중, 본당 간 사목자 간의 불편한 관계 유발 등등을 들 수 있다.

5. 바람직한 해결

교구 내의 모든 “신자는 거주지의 본당 사목구에 교적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사할 때에는 교적도 옮겨야 한다”(교회법 제107조, 사목지침서 제159조 2항).

교무금도 소속 본당에 헌납하여야 한다.

타구역의 신자는 다른 본당의 중요 직책(사목위원, 구반장, 단체장, 기타 간부직)을 맡을 수 없으며 그 본당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교통상의 불편 등으로 타본당 전례 또는 신심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혹 관할 구역 조정이 미비한 경우 교구 측에서 이를 재검토하여 개선 하기로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의 고유 임무이자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 해당 본당 사목구 내에서는 주임 또는 주임이 그 일을 위임한 사람만이 아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집·상점·사무실 축복, 사가에서의 미사 집전, 사목구 내에서의 공개된 강연회, 신심행사와 미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장례 집전, 각종 신심단체·운동·후원회의 결성과 운영 등. 이미 교구 신자 공동체에 알려드린 바 있는 이상의 내용대로, 본당 안에서의 교적관리와 구역외 신자 사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공지해 드립니다.

이상은 천주교 춘천교구에서 인용한 글 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기도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저희로 하여금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 주님,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을 주시어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며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마침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본 당 소 식

◎ 5월 사목회의 안내

▶일 시 ; 4월 25일 주일 미사후

▶장 소 : 교육관

모든 단체장, 구역장도 참석바랍니다.

◎ 4월 구역 모임 안내

▶키치너 24일 7시 교육관

▶워털루 2구역 24일 6시 이 동기 형제맥

4구역 24일 6시 이 상재 형제맥

◎ 올뜨레아 모임 안내

오늘 미사후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 신앙특강 안내

▶초청강사: 김영희 카타리나 자매(한국거주)

▶일시: 5월 2일(부활 제 5 주일) 오후 3시

▶장소: 본당

▶비고: 주일 미사 후 친교식사가 있습니다.

◎ 교육관/사제관 관리 안내

▶구역별 월 2회 잔디 관리 및 청소 담당

5월 : 키치너

6월 : 브랜포드

7월 : 캠브리지

◎ 바뇨의 성모 기도 모임 안내

▶일 시 ; 4월 30일(금) 오후 7시

▶장 소 : 한택중 형제맥

▶정기적인 참석자가 아니라도 환영합니다.

◎ 재정분과에서 알려드립니다.

헌금 전산화 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헌금 내역이 필요한 교우는 재정분과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백옥현 형제 : tri-best@rogers.com)

◎ 본당 홈페이지에 오늘의 말씀 강론 동영상(영어)과 주일 성가곡이 올려있습니다.

(www.kwpaul.com)

◎ 안내/헌금 담당

▶5월 : 워털루 4 구역

▶6월 : 캠브리지 구역

각 담당 구역에서는 2인 1조로 미사 30분 전에 성당에 도착하여 미사 준비와 마감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영성 세미나 (영어로 진행됩니다)

일 시 : 4월 17일 ~ 5월 31일 매 월요일

오후 7시 ~ 9시

장 소 : 본당

비 용 : \$20

문 의 : 한택중 총무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 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 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09년 4월 11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575.25
교 무 금 : \$
감사헌금 : \$ 10.00
성전건립 : \$
성모님동산 (누계):금주\$10 (\$5805.00)
합 계 : \$ 585.25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이상희 세라피아 ☎ 519 894 3533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10-16호

2010. 4. 18.

부활 제 3 주일

해설 김 손권

차주 해설 최 우석

성

가

입 당 (130) 예수 부활하셨네

봉 헌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성 체 (179) 주의 사랑 전하리

되 장 (135) 알렐루야 주 예수

화 답 송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영성체 후 묵상

우리의 일상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분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적의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베풀고자 하시면 언제나 오셔서 베풀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새롭게 시작하는 은총을 청해야 겠습니다.

독

서

4월 18일

한택중

한재희

4월 25일

강석균

강명숙

봉

헌

4월 18일

박재영

박경미

4월 25일

한택중

한재희

복

사

4월 18일

안아림

김근영

4월 25일

최예슬

강수현